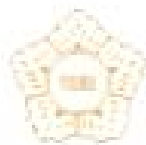


강동구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26. 5.



강동구의회
GANGDONG-GU COUNCIL

제 출 문

강동구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강동구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 5.

화이 인문차문화연구소

- ▶ 연구기관 화이 인문차문화연구소
- ▶ 연구책임 박 은 선 (화이 인문차문화연구소 소장)
- ▶ 연 구 원 강 진 호 (인문 디자인문화연구소 소장)
- ▶ 연 구 원 이 유 림 (콘텐츠 제작 연구원)

■ 목 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배경	1
3. 연구 목적	2
 제2장 다문화 사회적 이론 배경 검토	4
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개념	4
1)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가치 지향	4
2)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계보와 성찰	5
2. 다문화 정책 및 이론적·제도적 배경	6
1) 국내외 다문화 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분류 모형	6
2) 국내 다문화 사회의 연구 경향과 특수성 분석	9
3. 다문화 정책 및 제도적 전개 과정	11
1) 국외 다문화 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11
2) 국내 다문화 정책의 형성과 변화 과정	13
3) 국내외 다문화 제도의 분석 및 함의	14
4. 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구조적 쟁점	15
1) 국내 다문화 현상의 발생 배경과 동인	16
2) 다문화 현상의 구조적 특징과 사회적 실태	17
3) 사회적 배제 기제와 인식의 구조적 한계	18

5.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성찰	20
1) 다문화 교육의 개념적 정립 및 지향점	20
2) 국내 공교육 체계 내 다문화 교육의 전개	21
3)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및 장애 요인	23
4) 다문화 교육의 비판적 고찰	24
5)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25

제3장 다문화 가족 실태 및 정책 환경 분석 27

1. 202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안 심의 주요 쟁점	27
1) 사회 통합 프로그램 예산 편중 및 실효성	27
2) 다문화 자녀 교육 및 성장 지원	27
3) 정부 정책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27
4) 복지 인프라 및 전달 체계	28
2. 국회 자료 및 제도적 배경	28
1)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및 기본계획 보고	28
2) 202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안 심의	28
3)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 처 보고서	29
4) 다문화 가정의 분포 현황.	29
3. 2026년 3월 외국인 유입 및 유출 통계 분석	30
1) 총괄 현황: 역대급 유입과 순증세 전환	30
2) 지역별 집중도 및 변동 특성	30
3) 체류자격별 유입 구조	30

4. 외국인 인권 침해 실태와 사회적 그림자	31
1) 현장의 폭력성	31
2) 구조적 취약성	32
3) 사회적 편견	32
5. 다문화 교육 현황 분석 및 성찰	32
1) 외국인 가정 학생의 비율	32
2) 국가별 다문화 학생 비율	32
3) 다문화 학생 수 증가 추세	33
4) 년도 별 증가 추세	34
5) 학년별 증가 추세	34
6) 저출산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현황	35
6.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한 정책적 제언	37
1) 인권 보호 중심의 노동 환경 혁신	37
2) 유학 인력의 질적 관리 및 정주 지원	37
3) 정주 환경의 매력도 제고	38
7.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38
1) 자녀 성장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38
2) 사회 통합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39
3) 가족 관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39
4) 다문화 학생의 교육환경	40

제4장 강동구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실태 현황 분석 41

1. 2026년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및 복지 정책 주요 내용 41
 - 1) 사업 목적 41
 - 2) 주요 분야 41
 - 3) 연계 사업 41
2. 강동구 가족센터 주요 사업 구조 및 현황 (프로그램 분류) 42
 - 1) 핵심 슬로건 (미션 및 비전) 42
 - 2) 센터의 목표 및 주요 역할 42
 - 3) 포용하는 '다양한 가족'의 범위 (단일 지붕 아래의 통합 지원) 42
 - 4) 보편적 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42
 - 5) 다문화 분야별 종합 세부 현황 43
3. 강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및 실태 현황 분석. 45
 -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업 (핵심 영역) 45
 - 2) 보편적 가족 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47
 - 3)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 및 문화 조성 (서울가족학교 연계) 48
 - 4) 아이 돌봄 및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구축 49
4.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관점에서의 종합 평가 49
 - 1) 언어 중심의 다차원적 역량 강화로의 진화 49
 - 2) 다문화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확보 50
 - 3) 보편적 서비스와의 통합적 제공을 통한 낙인감 최소화 50

5. 강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현황	50
1) 다(多) 하나의 가족 축제	50
2)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51
3)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51
4)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52
5)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언어 지원	52

제5장 강동구 정책적 시사점 및 공간 활용 제언 53

1. 전통 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제언	53
1) 전통 문화에 내포된 철학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53
2)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통합 지원 확대	55
2. 암사동 선사 유적의 인문적 ‘선사 다도’ 모델 개발	57
1) 암사동 선사 유적의 인문적 연구 내용	57
2) 1단계: 암사동 선사(先史)에서 배우는 씬과 예(禮)	58
3) 2단계: [배움] 자연을 닮은 몸가짐, 전통 다례(茶禮)	58
4) 3단계: [교류] 빗살무늬 토기에 담긴 다문화의 맛	58
5) 4단계: [나눔] 선사의 지혜로 가꾸는 현대의 삶	59
6) 강동구 특화 포인트	59
3. 허브천문공원을 활용한 별자리 명상과 다도의 융합.	60
1) 별 빛 향기, 강동의 밤 [다문화 가족 치유 명상]	60
2) 1단계: 향기로 여는 마음 [허브 아로마 테라피]	60
3) 2단계: 별자리로 잇는 고향 [별자리 스토리텔링]	61
4) 3단계: 강동의 밤 아래 ‘정좌’[별자리 명상]	61
5) 4단계: 빛나는 소원 기록[별빛 타임캡슐]	61
6) '별자리 인문학' 강연과 茶 명상[마음 챙김]	62
7) 강동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 팁 강동구 특화	62

4. 북카페 ‘다독다독(多讀茶篤)’의 공간 및 큐레이션 전략	63
1) 구천면로점에서 예술과 힐링	64
2) 고분다리시장점의 생활과 활력	64
3) 운영 주체: ‘다문화 티-마스터(Tea-Master)’ 양성	65
4) 공간 및 안전 가이드라인	65
5) 프로그램 기대효과 및 제언	66
5. 다문화 가정 통합을 위한 독립적 ‘강동 다레원’ 건립의 타당성	66
1) 다레원 건립 시 이로운 점.	66
2) [프로그램 1] 강동 '글로벌 티-서포터즈' 양성 과정	76
3) [프로그램 2] '고향의 맛, 한국의 예' 융합 다회(茶會)	76
4) [프로그램 3] 생애주기별 '강동 예절 학교'	79
5) 강동구만의 특화 공간 구성 제안	80
6) 정책적 제언: '강동형 다문화 통합 모델'	80

제6장 강동구 다문화 정책 발전 제언 및 결론 81

1. 다문화 핵심 프로그램 제안의 기대효과	81
1) 암사동 선사 유적 연계의 ‘선사 다도’ 다문화 모델 개발	81
2) 허브천문공원 활용: 다문화 치유를 위한 ‘명상 다도’ 융합	81
3) 북카페 ‘다독다독’: 다문화 거점 및 큐레이션 전략	82
4) 강동 다레원 건립: 다문화 교류 중심지 구축 타당성	82
2. 다문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당위성	83
1) 정책적 측면: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제도적 기반	83
2) 사회적 측면: 다문화 구성원의 소속감 증진 및 통합	84
3) 경제적 측면: 다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84
4) 지역적 당위성: 포용적 다문화 거버넌스 구현	84

참 고 문 헌 86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현대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글로벌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요인임과 동시에,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 강동구는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보편적 가족 복지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촘촘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본 보고서는 강동구 가족센터(위탁운영: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에서 수행 중인 주요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지역 기반 가족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 2026년 다문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포괄적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격 개편하고 있다.

- 자녀 성장 및 정착 지원의 세분화: 이주 초기 단계의 언어 지원을 넘어, 학령기 및 청년기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정서 지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춘 집중 케어가 강조되고 있다.
- 가족센터의 거점 허브 역할 강화: 다문화 가족센터가 단순 상담 기관을 넘어 복지, 교육, 고용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관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전략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서구 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 정책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정책을 진단하여 이를 강동구 정책과 문화 환경에 맞는 방향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강동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선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공존하는 실천적 통합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맞춤형 실태 분석:** 강동구 내 다문화 가족의 실태 및 생활 양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기존의 인구 통계적 접근을 넘어, 주거 지역별(신도심 vs 원도심), 생애주기별(영유아기 vs 학령기 vs 성인기)로 다문화 가족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 **강동구형 사회적 통합 모델 정립:** '강동구형 사회적 통합 모델'의 개념적 틀을 정립한다. 이주민의 일방적인 동화가 아닌,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자산(Multi-cultural Asset)과 강동구의 인문적 가치가 결합된 상호 호혜적인 통합 모델을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적 치유'와 '다례(茶禮)를 통한 예절 문화' 등 정서적 접근법을 적극 도입한다.
-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단순 이론 제시를 넘어, 강동구 내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학교 등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 로드맵을 제안한다. 특히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역점을 둔다.
- **중장기 정책적 제언:** 강동구 다문화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강동구의 자치법규 개정이나 예산 편성,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의 기초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제2장 다문화 사회적 이론 배경 검토

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개념

1)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가치 지향

① 다문화주의의 본질적 정의

- 다문화주의는 단일한 정책 모델이나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히 여러 문화가 물리적으로 혼재하는 상태(Multiculturality)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사회적 자본으로 승인하고 제도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규범적 가치 체계이다.

- 특히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주민, 소수 민족, 언어 및 종교적 소수자가 주류 문화로의 일방적인 흡수(동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공적 영역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 상태를 지향한다.

② 제임스 스테르바(James P. Sterba)의 정의론적 관점

- 스테르바는 다문화주의를 단순한 문화적 공존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평등'의 실현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는 자유주의 기획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각 문화적 실체가 사회 내에서 정의로운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묻는 정의론(Justice)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그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에 근거하며, 이는 주류 문화가 소수 문화를 배제하지 않고 동등한 권력과 기회를 분배받는 구조적 평등을 전제로 한다.
- ③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
 - 캐나다의 철학자 테일러는 인간의 정체성이 타인과의 상호 인정(Recognition)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불인정'이나 '오인(Misrecognition)'이 단순히 무관심을 넘어 소수자에게 심각한 자아 훼손과 심리적 억압을 가하는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 따라서 테일러는 각 집단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공적으로 공식 승인해야 한다는 '승인의 정치'를 주창하였다. 이는 소수자를 시혜적 배려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정립함으로써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가 대등하게 마주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계보와 성찰

- ①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다문화적 시민권
 - 킴리카는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소수 집단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탐구하였다. 그는 '다문화적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을 제안하며, 소수자가 자신의 문화를 누릴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 그가 제시한 '집단 특수적 권리'는 소수자가 주류 사회의 제도 안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돕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적 존엄성을 지켜 주는 법적 보호 장치로서의 다문화주의를 의미한다.
- ② 테런스 터너(Terence Turner)의 비판적 다문화주의
 - 터너는 집단 간의 경계를 고착화하거나 단순히 차이를 나열하는 데 그치는 '차이의 다문화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문화적 차이를 생성하는 권력 관계를 성찰하고, 서로 다른 집단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며 새로운 보편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제안하였다.
 - 터너의 논의는 다문화주의가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와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2. 다문화 정책 및 이론적 · 제도적 배경

1) 다문화 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사회 통합 분류 모형

- 다문화 정책은 한 국가나 공동체가 주류 문화와 이질적 소수 문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결속을 도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적 전략이다. 이는 근대 국가가 견지해 온 문화적 동질성 패러다임을 현대 사회의 인적 구성 변화에 맞추어 재편하는 핵심 지표이며, 2026년 현재 '포용적 공동체'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근간이 된다.

①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정책적 대립과 진화

○ **동화주의(Assimilationism)의 한계와 성격:**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언어, 관습,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는 단기간에 사회적 일체감을 확보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해 보이나, 소수자의 정체성 상실과 그에 따른 심리적 소외, 잠재적 문화 갈등을 야기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의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이 대표적이거나, 이는 현대의 다양성 존중 가치와 충돌하며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규범적 지향:** 문화적 독자성을 고유의 가치로 인정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공존을 지향한다. 이는 각 문화가 본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 혹은 '모자이크(Mosaic)' 모형으로 상징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갈등의 씨앗이 아닌 사회적 창의성과 역동성을 증진시키는 유무형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② 베리(Berry)의 문화적응 유형론과 사회 통합의 양상

○ 심리학자 베리는 소수 집단이 자신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는 태도와 주류 사회에 참여하여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의 교차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문화적응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 **통합(Integration):** 소수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교류하는 상태이다. 이는 주류 사회의 개방적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가장 이상적인 사회 통합의 형태로 간주된다.
- **동화(Assimilation):** 소수자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고 주류 사회의 가치체계와 생활 양식에 완전히 흡수되는 상태이다. 표면적인 마찰은 적을 수 있으나 소수자의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결점이 있다.
- **분리(Separation):** 주류 사회와의 교류를 거부하거나 배제당한 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영역에만 고착되어 고립되는 상태이다. 이는 사회 내 평행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 **주변화(Marginalization):**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도 상실하고 주류 사회로부터도 소외되어,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못한 채 심리적·사회적 불안정에 노출되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 중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회적 결속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Integration)' 모델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는다.

③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의 다차원적 이해

- 사회 통합은 단순히 이주민을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자립, 언어적 소통, 심리적 소속감, 그리고 시민적 참여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2020년대 중반 이후의 담론은 일방적인 혜택 제공이 아닌, 이주민과 선주민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상호 소통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사회 통합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2) 국내 다문화 사회의 연구 경향과 특수성 분석

-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서구 이민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구조적 맥락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학술적 배경이 된다.

① 한국 다문화 연구의 흐름과 격차

- 국내 다문화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에 대응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정착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 지원 방안에 집중되었으며, 서구의 이론적 담론을 한국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 고찰 없이 도입해온 측면이 있다.
- 이로 인해 학술적 이상과 실제 지역 공동체 내부의 정서, 그리고 행정 현실 사이에 이른바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官) 주도의 일방향적 다문화주의를

넘어, 실제 수요자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자생적 통합 모델'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② 조선 후기 호락논쟁(湖洛論爭)을 통한 타자 수용의 철학적 고찰
 -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서구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지적 전통에서도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8세기 호락논쟁 중 낙론(洛論)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은 사람과 사물, 혹은 나와 타자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며 보편적 수용성을 강조한다. 반면 호론(湖論)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은 그 차별성과 특수성에 주목한다.
 - 이러한 논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특수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준거를 제공한다. 이는 서구식 다문화주의와는 차별화된,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타자 포용의 논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서구와 차별화되는 한국 다문화 현실의 특수성
 - 서구 국가들이 수세기에 걸친 완만한 이민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문화주의를 정착시킨 것과 달리, 한국은 강력한 단문화적·혈통 중심적 기반 위에서 불과 30~40년이라는 압축적인 기간 내에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였다.
- ④ 정책적 이원화 체계의 명과 암
 -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한시적 체류자)와 결혼이민자(정주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독특한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혈통과 국적에 기반한 귀속적 인식이 정책 설계에 깊게 작용하게 함으로써 단순 체류자와 정주자 사이의 인권 및 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상호 수용의 공동체 구축 과제

- 한국형 사회 통합 모델은 이러한 역사적 압축성과 혈통 중심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이주민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대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선주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3. 다문화 정책 및 제도적 전개 과정

- 본 장에서는 다문화 정책이 각 국가가 직면한 역사적 기로와 사회적 갈등의 양상에 따라 어떠한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 왔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현대 다문화 정책의 전형을 제시한 신대륙 국가들과 뒤늦게 사회 통합의 과제를 안게 된 유럽 구대륙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준거 집단으로 삼아 한국 다문화 제도의 특수성과 발전 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국외 다문화 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① 신대륙(캐나다·미국)의 헌법적 다문화주의와 제도화
- **캐나다의 선도적 다문화 정책:** 캐나다는 건국 초기부터 영국계와 프랑스계라는 이질적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다. 1969년 '이중언어법'을 통해 다양성 수용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공식 선포하였다. 특히 1988년 제정된 '다문화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은 문화적 유산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법적·제도적 기틀을 완성하였다.

- **미국의 패러다임 전환:** 초기 미국은 다양한 인종을 하나의 '미국인'으로 녹여내려는 '용광로(Melting Pot)' 정책에 기반한 강력한 동화주의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민권운동을 거치며 인종적·문화적 소수자의 권리가 부상하였고, 현재는 각 문화의 고유성을 샐러드 재료처럼 보존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 모형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제도적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② 구대륙(독일·프랑스)의 시행착오와 사회 통합의 재편

- **독일의 '잠시 머무는 자'에서 '시민'으로의 인식 전환:** 전후 경제 복구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했던 독일은 195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모집하였으나, 이들을 사회 구성원이 아닌 한시적 '초청 노동자(Gastarbeiter)'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체류가 장기화되고 정주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독일 사회에 큰 비용을 치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5년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을 제정하여 언어 교육과 사회 적응을 포괄하는 '상호 통합적 다문화주의'로 기초를 완전히 수정하였다.

-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통합 모델:** 프랑스는 '라이시테(Laïcité,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종교나 문화적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편적 시민성을 강조하는 동화주의 모델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수 민족 밀집 지역에서의 갈등은 일방적인 동화주의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 문화적 존중과 사회적 결속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2) 국내 다문화 정책의 형성과 변화

- ① 외국인 노동자 정책: 관리에서 인권과 숙련의 영역으로
-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과 한계:** 1990년대 초 제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제는 외국인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규정하여 저임금과 인권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이는 불법 체류자의 양산과 국제적인 인권 비판을 초래하는 제도적 결함으로 이어졌다.
- **고용허가제(EPS)의 정착:**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며 제도적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확대와 지역 특화형 비자(F-2-R)의 도입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한 경제적 보조재를 넘어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다문화 가족 정책: 시혜적 지원에서 역량 강화의 법제화로
- **제도적 기틀의 마련:**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발표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은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담론이 공식화된 계기였다. 특히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하여 전국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정책 패러다임의 고도화:** 초기 정책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습득이라는 '동화적 적응'에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그 전문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구성원을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닌 사회적 자본의 주체로 인식하는 변화를 반영한다.

3) 국내외 다문화 제도의 분석 및 함의

- ① 태생적 역사 배경에 따른 정책 기조의 차이

- **건국 기반 vs 전환 기반:** 캐나다 등 신대륙 국가들이 건국 초기부터 다문화적 속성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 헌법적 수준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장기간 유지된 단일문화 사회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해 급격히 다문화로 이행된 배경을 갖는다. 이러한 급격한 전환은 제도적 인프라는 신속히 확충했으나, 사회적 인식과 수용성 면에서는 여전히 과도기적 갈등을 내포하는 원인이 된다.

- ② 대상별 대응 체계의 이원적 구조

- **한국형 이원 체계의 특수성:** 한국 정책의 독특한 특징은 외국인 노동자(단기 체류·순환 보직)와 결혼이민자(영구 정주·포용)를 엄격히 분리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다. 서구 이민국가들이 외국인 유입을

기본적으로 '정주'와 '시민권 획득'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포괄적인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통합의 지향점: 일방적 적응에서 상호 수용으로

- **동화적 통합의 극복:** 독일이나 캐나다가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상호 이해의 교두보로 삼아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의 초기 제도는 이주민이 한국적 가치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동화주의적 색채가 짙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진정한 통합은 선주민의 인식 변화와 이주민의 역량 발휘가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모델은 서구의 보편적 다문화주의를 참고하되, 한국의 혈통 중심적 인식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4. 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구조적 쟁점

- 대한민국의 다문화화는 서구의 역사적 이민 국가들이 수세기에 걸쳐 경험한 변화를 불과 30여 년이라는 압축적인 기간 내에 관통하며 진행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이행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생존적 차원에서 추동되었기에, 한국 사회만이 지닌 독특한 구조적 특징과 내재적 갈등 양상을 지닌다. 본 장에서는 한국 다문화 현상의 발생 배경을 심층 분석하고, 현재의 실태와 인식의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국내 다문화 현상의 발생 배경과 동인

① 인구 구조의 지각 변동 및 경제적 필요성

- **인구 절벽과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이른바 3D 업종에서의 생산가능인구 부족은 산업 경쟁력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인력난은 국내 인력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력을 필수적인 생산 요소로 도입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이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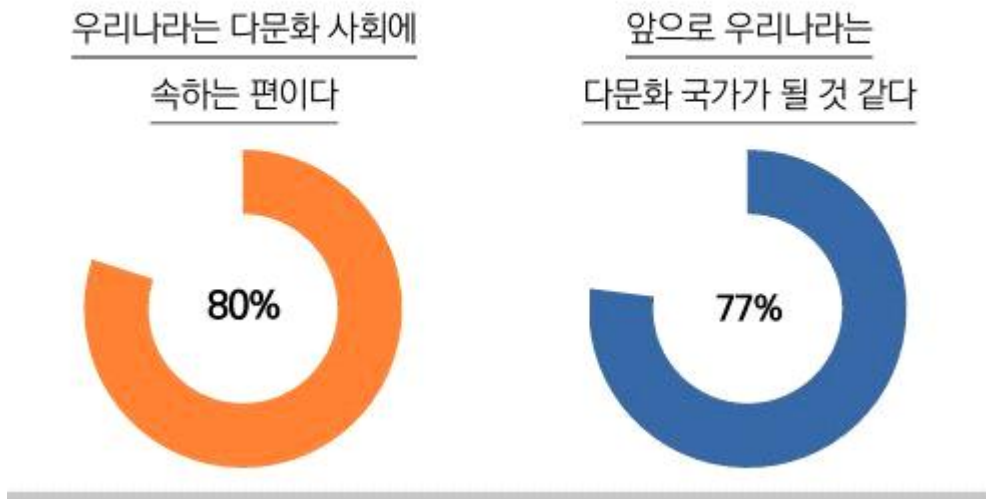
- **노동 시장의 구조적 재편:**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은 단순히 수치상의 부족을 메우는 것을 넘어, 한국 노동 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켰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인적 자원의 유입이 제도화되었으나, 이는 산업 현장의 요구와 인구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경제적 생존 전략의 결과물로서 한국 다문화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②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수용적 압력

- **성비 불균형과 혼인 이주:** 198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농촌 지역의 극심한 성비 불균형은 농촌 공동체의 인구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국제결혼 권장 및 지원 사업'은 이주 여성의 대거 유입을 촉진하며 한국 다문화 사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혼인 이주 중심의 가족 형성'을 가능케 하였다.

- **문화적 접촉면의 확장:**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은 같은 민족 내의 문화적 이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해외 문화에 대한 간접 체험을 보편화 시켰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질적 문화에 대한 수용적 요구를 증대시켰으며, 장기간 유지된 단일문화 체제에 균열과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되었다.

[그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동의율)



2) 다문화 현상의 구조적 특징과 사회적 실태

- ①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정주화(定住化) 갈등과 신분적 이원화
- **경제적 도구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전이:** 초기 유입 당시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할 때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경제적 소모품' 혹은 '한시적 체류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숙련인력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는 필수 구성원이자 지역 사회의 소비 주체로 자리 잡았다.

- **법적 지위와 사회적 기대의 괴리:** 정책 기조는 여전히 이들을 순환 보직 중심의 '한시적 집단'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의 가족 동반과 정주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와 현실적 정주 양상 사이의 괴리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② 국제결혼 가구의 성숙과 다문화 2세대의 부상

-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 단위의 안착:** 이주 여성의 유입으로 탄생한 '다문화 가족'은 단기간 내에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가족 모델 중 하나로 편입되었다. 이들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우리'라는 범주에 비교적 빠르게 수용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 내 갈등, 경제적 자립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의 전이:** 현재 한국 다문화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다문화 2세대의 성장과 사회적 진출이다. 초기 영유아기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책 욕구는 이제 학교 적응, 상급 학교 진학,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직업 훈련과 군 입대 문제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이들 세대의 원만한 사회 통합 여부는 향후 한국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배제 기제와 인식의 구조적 한계

- ① '단일민족 서사'의 견고함과 타자화(Othering)
- **혈통주의적 국가관의 장벽:** 반만년 단일혈통을 강조해 온 한국

사회의 강력한 민족 서사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는 이질적 소수 집단을 배척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폐쇄적 민족주의는 이주민을 동등한 주체가 아닌 배려 혹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형성하며, 이들이 지역 사회에 심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 **전통적 인식을 통한 비판적 성찰:** 조선 후기의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인성과 물성이 같은지를 논하며 타자를 수용하는 철학적 태도를 다루었다.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낙론(洛論)적 시각과 차별성을 강조한 호론(湖論)적 시각 사이의 긴장은 오늘날 우리가 이주민을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구히 다른 타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적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제도적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호론적 차별성에 기반 한 배제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② 정책과 현장 사이의 격차 심화

- **동화주의적 정책 집행의 한계:** 정부 정책은 외형적으로 상호 존중과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주민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순응하기를 강요하는 '동화주의'의 틀에 갇혀 있다. 이러한 일방적 통합 정책은 이주민의 고유한 자산과 역량을 소멸시키며, 진정한 의미의 상호 통합(Mutual Integration)을 저해한다.
- **인권 사각지대와 사회적 소외:** 특히 법적 보호 체계에서 상대적

으로 소외된 비전문 노동자나 불안정한 신분의 이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는 다문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구성한다. 언어 장벽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결합된 다층적인 소외 현상은 이들을 잠재적인 사회 갈등의 주체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 다문화 교육 현황 분석 및 성찰

- 다문화 교육은 특정 소수 집단을 향한 시혜적 배려나 일방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보충 교육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문화적 자산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일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기제이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을 갈등의 불씨가 아닌 공동체의 창의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견인하는 내면적 토대를 형성한다.

1) 다문화 교육의 개념적 정립 및 지향점

- ① 다문화 교육의 학술적 정의와 보편적 권리 보장
-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 성별, 언어,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고, 각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교육과정 내에서 동등하게 존중하는 전면적인 교육 개혁 운동으로 이해된다.
- 학술적으로 제임스 बैं크스(James A. Banks)는 이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넘어 지식 구성 과정, 편견 감소, 공평한 교수법,

학교 문화의 재구조화 등이 결합된 포괄적 체계로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상호 이해와 수용을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존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쌍방향적 가치 교육 체계'로 규정한다. 이는 특정 대상에 국한된 특수 교육이 아니라, 현대 시민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② 교육적 가치와 미래 역량: 성찰과 공존

-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 가치는 자국 중심주의나 혈통 중심의 폐쇄적 의식에서 탈피하여, 타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내면에 잠재된 고정관념을 스스로 돌아보는 비판적 성찰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
-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웃과 대등하게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세계 시민성'의 기초가 된다. 학습자들이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실천적인 공존의 기술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2) 국내 공교육 체계 내 다문화 교육의 전개

① 국가 교육과정 기조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정표

- 기초 연구 자료를 통해 한국 공교육의 궤적을 분석해 보면, 교육 과정은 오랜 기간 '단일민족' 정체성을 국가 결속과 애국심의 근간으로 강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 배경 인구의 비약적인 증가와 글로벌 시민 의식의 확산은

교육 현장에 근본적인 담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되었다.

- 2006년 교육 당국을 중심으로 도덕, 사회, 국사 등 주요 교과서에서 '한 핏줄'이나 '단일 민족'과 같은 배타적 표현을 수정·삭제하고 다원적 가치를 수록하기 시작한 정책적 결단은, 한국 사회가 폐쇄적 혈통주의를 넘어 본격적인 공존의 시대로 이행함을 알리는 상징적 지표였다. 이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며 다문화 교육은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다양성 존중이 공교육의 핵심 가치로 안착하는 토대가 되었다.

② 교과서 구성 체계의 한계와 실생활 밀착의 과제

- 과거부터 축적된 교과과정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문화 관련 기술은 여전히 '문화적 차이와 지역 갈등', '문화 변동' 등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기술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체 교과 내용 중 다문화 관련 비중이 여전히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보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더욱이 기술된 사례들이 캐나다의 언어 분쟁이나 아프리카의 인종 갈등 등 원거리의 사례에 치중되어 있어, 학습자가 우리 이웃인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차별과 공존의 문제를 내면화하기에는 현실적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차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적 맥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이다.

3)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및 장애 요인

- ① 취학 및 재학 현황에 나타난 구조적 불균형과 사각지대
 - 이주 배경 가구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교육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 특히 진학 구조의 흐름을 보면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재학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 부적응과 정체성 혼란이 심화되어 공동체 내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들의 교육 소외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통합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 ② 학교생활의 주요 장애 요인과 공동체적 손실
 - **언어적 장벽:** 부모의 한국어 숙련도 부족이 자녀의 초기 언어 발달 지체로 이어지는 현상은 기초 학습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의 위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 **정서적 소외와 낙인:** 외형적 차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편견은 집단 따돌림이나 정서적 소외를 유발하며, 이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잠재적 역량 발휘를 저해한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공동체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인 지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4) 다문화 교육의 비판적 고찰

- ① 동화주의적 관성과 '관광객적 접근'의 고착화
 - 현재 교육 현장에서 운영되는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기존 틀에 일방적으로 적응시키려는 시혜적·동화주의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특히 타 나라의 의상이나 음식을 일회성으로 체험하는 이른바 '관광객적 접근(Tourist Approach)'은 문화를 박제화하고 소수자를 '이국적인 타자'로 규정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피상적인 접근은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를 방해하며, 오히려 차별의 구조를 무의식중에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② 교육 주체의 다문화 감수성 및 전문 역량의 격차
 - 학교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분석 결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실제 갈등 상황을 중재하거나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준비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 이론 위주의 단기 연수 체계는 복합적인 현장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교사들조차 상담과 지도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 주체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인프라와 교육 과정의 재구조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5)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① 변혁적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 전환

- 단순히 기존 교육과정에 다문화 내용을 파편적으로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과정의 구조 자체를 혁신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변혁적 접근이 필요하다.
-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무의식적인 편견을 스스로 수정해 나가는 성찰적 교육을 통해 교육 전반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쌍방향 교육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의 제고

- 다문화 교육은 더 이상 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 교육'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존은 선주민 집단(일반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 교육이 대폭 강화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인권 존중의 가치가 공동체 전반에 흐를 때 통합의 토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③ 지역 사회 밀착형 실천 모델의 정착과 공동체적 의무

- 교과서 중심의 이론 학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우리 곁의 이웃과 직접 소통하는 지역 사회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 내 이주민을 강사나 멘토로 초빙하여 그들이 지닌 역량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게 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대등하게 배우는 '상호 학습형 커리큘럼'을 구축해야 한다.

- 이러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문화 사회의 능동적 주체로서 공존의 가치를 일상의 문화로 안착시켜야 하며, 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제3장. 다문화 가족 실태 및 정책 환경 분석

1. 202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안 심의 주요 쟁점

- 국회에서 발표된 2026년도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안 심의 자료와 관련된 핵심 내용 정리로 이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통합 프로그램 예산 편중 및 실효성

-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을 돕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가 주요 심의 대상이다.

2) 다문화 자녀 교육 및 성장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 지원 예산 확충안이 포함되어 있다.

3) 정부 정책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 정부의 다문화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보고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되는 법적 절차와 연계된 예산안이다.

4) 복지 인프라 및 전달 체계

-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등 현장 접점에서의 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화를 위한 운영비 및 인프라 개선 예산이 논의된다.

2. 국회 자료 및 제도적 배경

- 정부의 정책 개편이 실제 2026년에 맞춰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관련하여 국회에서 다루는 주요 자료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및 기본계획 보고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확정하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 언급된 2026년 개편안 역시 국회 상임위의 심사 및 피드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다.
- 최근 국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들이 꾸준히 발의 및 통과되고 있다.

2) 202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안 심의

-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가족센터 인력 확충, 이중 언어 및 기초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에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한다.

- 매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이 최종심의 및 의결되어야만 지역 현장에 실질적인 재원이 배분된다.(예: 전북 등 주요 지자체에 배정되는 다문화가족 초기 적응 및 자녀 성장 지원 국비 예산 등)

3) 입법조사 처 및 예산정책 처 보고서

-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주 배경 인구를 포괄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성, 혹은 현행 가족센터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연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4) 다문화 가정의 분포 현황

- 2026년 현재 발표된 가장 최신 자료인 통계청의 202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와 2024~2026 다문화 인구 동태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분포 현황

① 전국 다문화 가구 분포 현황 (2025년 조사 기준)

- 2025년 말 기준 전국 다문화 가구는 약 43만 9,304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가구의 약 2%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구분	수치 (2025년 말 기준)	비고
총 가구 수	약 439,304가구	전년 대비 약 5.7% 증가
총 가구원 수	약 1,239,448명	국내 출생 자녀 비중 확대
수도권 비중	약 47%	경기, 서울, 인천 집중 현상 지속

3. 2026년 3월 외국인 유입 및 유출 통계 분석

1) 총괄 현황: 역대급 유입과 순증세 전환

- 2026년 3월은 외국인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시기이다.
- 신규 유입: 43,126명으로 전월(16,052명) 대비 168.7% 증가했다.
- 순증감: 유입에서 유출(12,877명)을 제외한 순증감은 +30,249명으로, 전월(-301명)의 감소세를 완전히 탈피했다.

2) 지역별 집중도 및 변동 특성

- 수도권: 흡수력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지역별로 유입 동인에는 차이가 있다.
- 서울: 유입률 급증이 가장 많고, 순 증감 7,739명으로 전국1위이다.
- 경기: 유입 인원은 7,449명으로 서울 다음이지만, 순 증감은 4,50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 부산 및 기타: 부산은 전월 대비 690.5%라는 기록적인 유입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전(934.8%)과 전북(340.1%)도 눈에 띄는 증가했다.

3) 체류자격별 유입 구조

- 26년 3월 통계의 핵심은 '유학생'과 '비전문취업자'의 역할 분담이다.

- 유학(D-2): 총 19,665명이 유입되어 전체 신규 유입의 약 45.6%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 비전문취업(E-9): 2,785명이 신규 유입되었으며, 경기(810명)와 경남(391명)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 재외동포(F-4): 2,867명이 유입되었으나, 영주(F-5) 자격은 순 증감 -150명으로 나타나 장기 정주 인력의 이탈 혹은 자격 변동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4. 외국인 인권 침해 실태와 사회적 그림자

- 통계상의 양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순위	시도명	신규 유입(명)	순증감(명)	특이사항
1	서울	11,024	7,739	전월 대비 유입 388.9% 폭증
2	경기	7,449	4,501	꾸준한 유입 및 최다 체류 유지
3	충남	3,197	2,360	비전문취업 및 유학 수요 혼재
4	부산	2,909	2,354	전월 대비 유입 690.5% 급증

1) 현장의 폭력성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폭행(지게차 감금 및 조롱 등) 사례는 산업 현장에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을 보여준다.

2) 구조적 취약성

- 고용허가제(EPS) 하에서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체류 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

3) 사회적 편견

- 유학생(D-2) 유입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순 '학비 충원 수단'으로 보거나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는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5. 다문화 교육 현황 분석 및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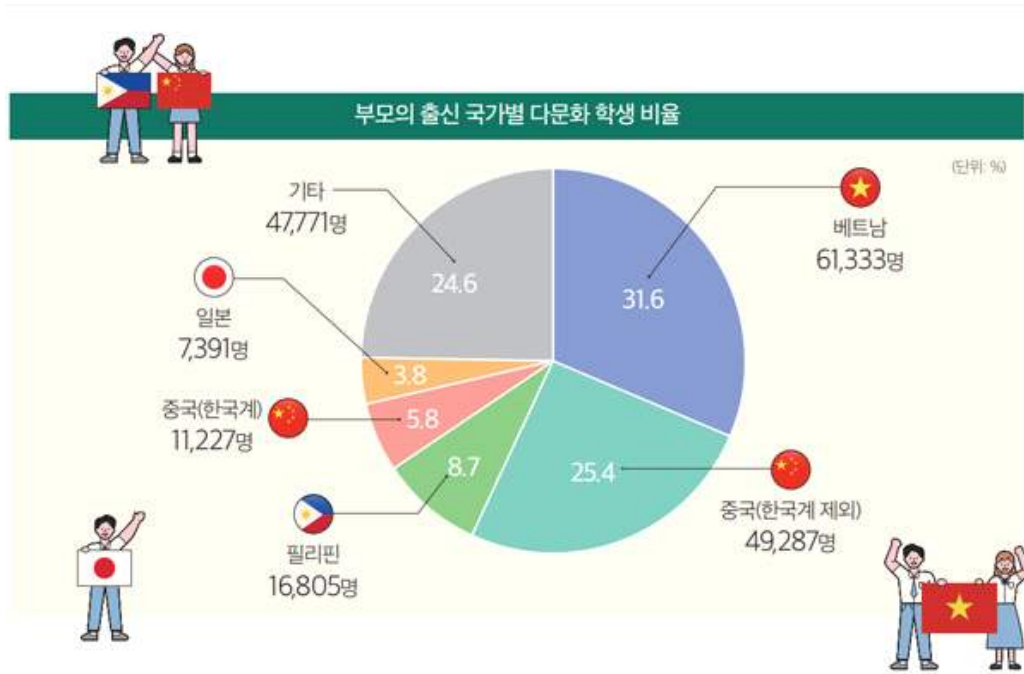
1) 외국인 가정 학생의 비율

- 외국인 가정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나누며, 우리나라는 국제결혼가정 중에서 국내출생이 전체 다문화 학생의 69.6%(13만 4,817명)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외국인가정은 24.3%(4만 7,010명), 중도입국은 6.2%(1만 1,987명)로 나타났다. 2015년 당시 다문화 학생 수는 8만 2,536명으로 10년간 2.3배 증가했다. 그동안 국내출생은 2배, 중도입국은 1.9배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가정은 5.7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가별 다문화 학생 비율

-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31.6%(6만 1,33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중국(한국계 제외) 25.4%(4만 9,287명), 필리핀 8.7%(1만 6,805명), 중국(한국계) 5.8%(1만 1,227명), 일본 3.8%(7,391명) 순이었다.



국가별 다문화 학생 비율

3) 다문화 학생 수 증가 추세

- 다문화 학생 비율 3.8%, 매년 상승하며, 다문화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 2024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19만 3,814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636명(7.0% ↑)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문화 학생 수 증가 추세

4) 년도 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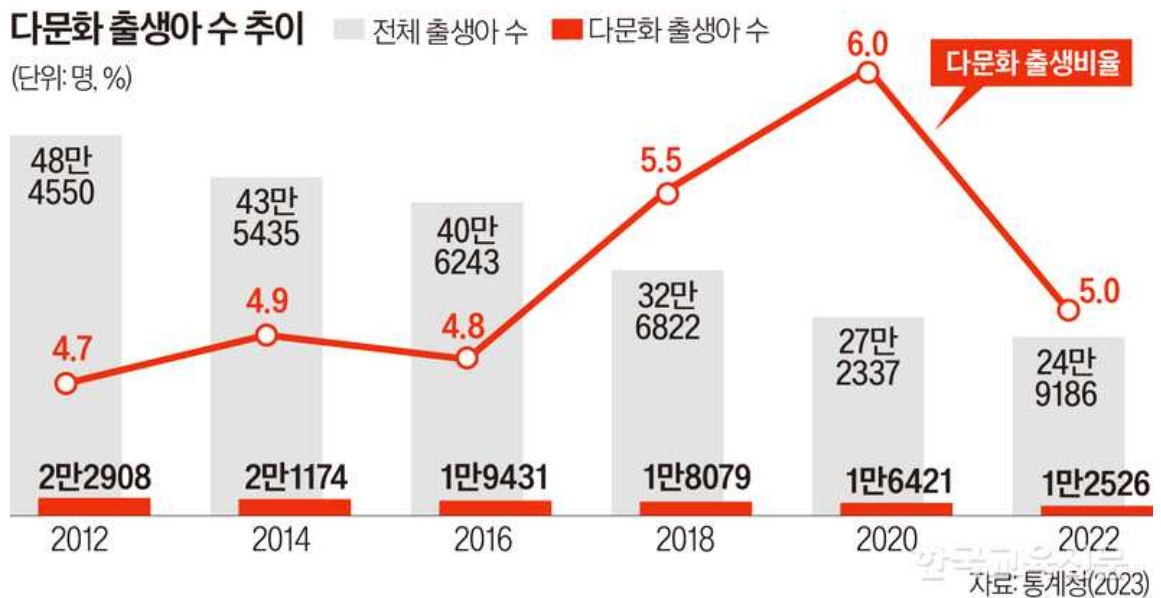
-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1만 7,459명으로 전년 대비 1,820명(1.6%↑)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47,910명으로 전년 대비 4,212명(9.6%↑) 증가, 고등학교는 27,673명으로 전년 대비 6,483명(30.6%↑) 증가, 각종학교는 772명으로 전년 대비 121명(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학년별 증가 추세

-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513만 2,180명으로 이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7%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으며, 중학교는 3.6%로 전년 대비 0.3%p 상승, 고등학교는 2.1%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였다.

6) 저출산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현황

- 사회 전반의 저출산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다문화 출생아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출생 비중마저 줄고 있어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2024년 6월 교육통계 FOCUS)에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550명에서 2022년 24만9186명으로 10년 새 약 4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국내 다문화 출생아 수도 2만2908명에서 1만2526명으로 45.3% 줄었다. 다문화 출생 비중의 경우 2012년 4.7%에서 2022년 5.0%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다문화 출생 감소보다

전체 출생아 수가 더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출생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0년 6.0%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21년 5.5%에 이어 2년 연속 0.5%포인트 감소했다.

- 이 같은 국내 출생아 수와 다문화 출생아 수의 변화는 미래 학령 인구 변화와 직결되고 있다. 보고서가 2023년 행정안전부 발표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22년 초등학생 수는 172%, 중학생 수는 243%, 고등학생 수는 240% 증가했다. 하지만 만 6세 이하 학령기 전 자녀수는 2012년 10만4694명에서 2014년 12만1310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져 2022년에는 10만9081명으로 조사됐다.
- 이에 따라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이 저연령 아동 중심에서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그동안 효과적인 정부 정책으로 다문화 자녀의 재학률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률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2023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을 필요(55.8%)로 하고 있고, 그 항목과 관련해서는 취업 및 창업지원(18.9%), 진로상담(13.0%) 등 청소년기 이후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인권 보호 중심의 노동 환경 혁신

- ① 사업장 변경 권한의 전향적 검토
 - 폭행, 임금 체불 등 중대한 인권 침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긴급 이동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 ② 사용자 교육 및 처벌 강화
 -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혹행위 적발 시 향후 10년 이상 외국인 고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

2) 유학 인력의 질적 관리 및 정주 지원

- ① 학업-취업 선순환 모델
 - 3월에 대거 유입된 19,665명의 유학생들이 단순 학위 취득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산업 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비자'와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 서울(+7,739명)과 경기(+4,501명) 등 순증가 폭이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국어 상담 센터와 문화 통합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 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3) 정주 환경의 매력도 제고

- ① 영주권 이탈 방지책 마련
 - 순감소세를 보인 영주(F-5) 자격자들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여, 가족 동반 거주 허용 범위 확대 및 의료·복지 혜택의 차별 철폐를 통해 숙련 인력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 ② 2026년 3월 통계는 대한민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다민족 사회'로 진입했음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유입은 사회적 갈등과 국가 이미지 실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유입 숫자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한국 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존중받는 '인권 기반의 통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7.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 국회에서 논의된 202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안 심의 자료 및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편성 및 논의되고 있다.

1) 자녀 성장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 ① 학습 지원 및 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학습 지원과정서 안정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이중 언어 교육

-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학습하여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 사회 통합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① 한국어 교육 및 정보 제공

- 초기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사회 통합 프로그램

-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문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예산 심의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빈번하게 논의되는 항목이다.

3) 가족 관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①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

-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② 취업 및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예산안에 반영되어있다.

4) 다문화 학생의 교육환경

- 교육부는 이러한 다문화 학생의 특징과 변화를 반영하여 '이주 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생이나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생활 한국어나 기초학습 한국어는 '한국어 예비학교'에서 담당하고 교과수업 등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 수업은 학교에서 담당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구성 변화, 학령 인구 변화 등 다문화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후기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했다. 향후 다문화 교육 정책이 단순히 다문화라는 배경에 따른 연령의 발달상 결핍 등에 집중하는 단계를 넘어 인구구조와 사회의 변화, 교육체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4장 강동구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실태 현황 분석

1. 2026년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및 복지 정책 주요 내용

- 현재 확인되는 '강동구 복지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관련 사업은 구의 맞춤형 복지 정책 4대 분야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1)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융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 주요 분야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3) 연계 사업

- 교육지원(학력 신장 및 인프라 구축), 양육지원(가정양육 및 아동 보호), 청소년 복지(자립 및 맞춤형 성장 지원)등이 있다.
- 참고 사항: 세부적인 예산 수치나 심의 결과서 등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된 추가 자료는 강동구청 홈페이지나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2. 강동구 가족센터 주요 사업 구조 및 현황(프로그램 분류)

- 강동구 가족센터는 보편적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문화가족의 자립 및 통합을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핵심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1) 핵심 슬로건 (미션 및 비전)

-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강동구 가족센터가 함께 만듭니다."
- "다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전문 선도기관"

2) 센터의 목표 및 주요 역할

-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가족을 넘어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강동구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다.

3) 포용하는 '다양한 가족' 범위 (단일 지붕 아래의 통합 지원)

- 특정 형태의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한다.

4) 보편적 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가족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한다.
-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운영한다.

5) 다문화 분야별 종합 세부 현황

- 강동구는 구민의 전 생애주기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 4대 분야인 교육지원, 양육지원, 청소년 복지, 다문화관련 지원 등의 주요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아래 내용은 과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면서, 이주민(다문화)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넘어 '모든 형태의 가족(비다문화, 맞벌이, 한부모 등)을 아우르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을 구상 시, 이처럼 '보편적 가족 복지 체계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활용하시 좋은 자료에 해당된다. 다음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강동구의 다문화 정책에 해당된다.

① 양육지원 :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질 높은 가정양육 지원

구분	대상 및 영역	주요 서비스 내용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지원)	신체/건강 (0~만12세)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비만·건강교실 등
인지/언어 (0~만12세)	기초학력검사, 학습멘토링, 영어교실,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0~만12세)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심리상담 치료, 아동학대예방 연계 등	
부모 및 가족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치료, 임산부 양육지원 등 양육 역량 강화	
가정양육지원 (강동어린이회관)	영유아 자녀 양육 부모	연령별/맞춤형 부모교육, 놀이학교, 보육반장 연계, 장애아가족 지원

② 교육지원: 학력신장 및 공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명	지원 대상 및 절차	주요 지원 내용 및 방향
교육경비 지원	관내 학교 (공모 및 심의위원회 심의)	- 소규모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확보 - 방과 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 - 사후평가(정산 및 결과)를 통한 환류.
서울희망 장학금 (고등학교분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중 소득인정액 중위 소득 80%이하	-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료 지원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운영비

③ 청소년 복지: 건강한 자립 및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

사업명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내용 및 혜택
청소년증 발급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
청소년 문화의집	수련활동 희망 청소년	천호·둔촌 2개소 운영 (다목적 시설, 교육 강좌, 동아리 지원)
상담복지 센터	9세~24세 청소년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예방교육, 찾아가는 거리상담
꿈드림 센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학습 지원, 직업체험, 자립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생리용품 바우처	~24세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월14,000원 한도)

④ **다문화 관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융합 지원

사업명	참여 대상	운영 내용 및 주요 서비스
다하나의 가족 축제	다문화가족 등 구민	가족명랑운동회, 세계 전통놀이, 축하공연 등 지역사회 소통 축제
통번역 사업	결혼이민자	입국초기 상담 및 베트남어-한국어 통·번역 지원
사례관리 사업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문화차이 등 가정위기 극복을 위한 입국초기 상담 및 위기가정 심리 지원
방문교육 사업	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	자택 방문 1:1 맞춤형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서비스
한국어교육 (무지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정규 한국어(1~4단계), 중도입국자녀과정, 심화과정(특별반) 운영
이중언어 교육지원	0~7세 자녀 양육 가족	다문화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

3. 강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및 실태 현황 분석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업[핵심 영역]

-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부터 다문화 자녀의 학업 및 언어 발달, 지역사회 내 문화 교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통합 모델을 제시한다.

① 언어 및 교육 역량 강화

- **무지개한국어학교:** 결혼이민자 수준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상시 운영)을 통한 소통 능력 및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 **대상:** 결혼이민자 및 중도 입국자녀

- **이중 언어 부모 가족 코칭 및 자녀교실:** 가정 내 이중 언어 사용 환경 조성, 다문화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정체성 확립을 지원한다.

- ▶ **대상:**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

-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평가, 교육 및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한다.

- ▶ **대상:**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아동

② 자녀 성장 및 학업 지원

- **다함께 두드림(학습 멘토링):** 기초학습지원(다배움 4반 등)을 통한 다문화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한다.

- ▶ **대상:** 다문화가족 취학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 **대상:** 다문화가족 초중고생

- **예비학부모 교육:** 한국 학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자녀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 ▶ **대상:**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③ 초기 정착 및 자립 지원

- **방문교육사업:** 집합 교육 접근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방문을 제공한다.

- ▶ **대상:**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 등

-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취업 소양 교육(사전교육) 및 직업 훈련 기관 연계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 **대상:** 결혼이민자

- ④ 상호 문화 교류 및 통합

- **다(多)함께 프로그램:**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교류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 ▶ **대상:** 지역사회 주민 전체

- **친친프로젝트 및 요리 쿡 문화 톡:** 음식 문화 등을 매개로 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프로그램 제공한다.

- ▶ **대상:** 지역사회 주민

2) 보편적 가족 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지역사회 내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는 심리·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 ① 가족 관계 회복 상담

- **개인/부부/가족 상담:** 가족 내 갈등 해결 및 의사소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제공(대면/사이버/전화)

- **집단 상담:** 동질적인 문제를 가진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제공.

- ② 위기가족 사례관리 및 이혼 가정 지원
- **온 가족 보듬 사업 (사례관리):**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족 발굴, 심리정서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한다.
- **면접교섭서비스:** 이혼 가정의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및 정서적 안정위한 지원을 한다.

3)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 및 문화 조성 [서울가족학교 연계]

- 가족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 수행을 지원하고,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확산한다.
- ①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 **영유아/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 자녀 발달 단계별 올바른 양육관 형성 및 긍정적 훈육 방법을 교육한다.
- **디딤돌 부모학교 및 아버지교실:**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 및 부모 역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② 가족 친화 문화 및 양성평등 확산
- **예비부부교실:** 결혼을 앞둔 커플의 상호 이해도 증진 및 건강한 결혼 생활 설계를 돕는다.
- **패밀리 셰프:** 가족 단위 요리 활동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 **남성 양육자 및 돌봄 프로젝트:** 독박 육아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육아 인식 개선 및 실천을 위한 지원을 한다.

4) 아이 돌봄 및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구축

-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인프라 사업을 제공한다.

①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안전한 자녀 돌봄 공간 제공하고, 장난감 /도서 이용 및 상시 체험 프로그램('쿵쾅! 유리드믹스' 등) 등을 운영한다.

- **자녀 돌봄 품앗이:** 이웃 간 육아 정보 공유 및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한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도모한다.

② 맞춤형 돌봄 서비스

-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전문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한 1:1 개별 돌봄 제공으로 양육 공백 해소.

4.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관점에서의 종합 평가

1) 언어 중심의 다차원적 역량 강화로의 진화

- 과거 다문화 정책이 한국어 교육 중심의 동화주의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현재 강동구의 사업은 '무지개한국어학교'를 기반으로 하되 '이중언어 부모 가족 코칭'과 '취업 지원'을 병행한다. 이는 이주민을

수혜의 대상이 아닌, 이중 언어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긍정적 전환이다.

2) 다문화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확보

- 자녀 언어발달지원(영유아기)'부터 '다함께 두드림(학령기 기초학습)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은 다문화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발달 지연과 학력 격차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훌륭한
안전망이다.

3) 보편적 서비스와의 통합적 제공을 통한 낙인감 최소화

- 센터의 조직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두드러지는 장점은 다문화
가족을 분리된 특수 계층으로 다루지 않고, '온가족보듬사업'이나
'서울가족학교'와 같은 보편적 가족 서비스망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을 줄이고 통합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5. 강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현황

1) 다[多] 하나의 가족 축제

- **가족명랑운동회(연 1회):**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 ▶ **일시:** 매년 4~5월 중
 - ▶ **장소:** 한강공원 축구장 등
 - ▶ **대상:** 다문화가족 등 강동구민 300여명
 - ▶ **내용:** 가족별 코너게임(세계 전통놀이 등), 단체게임, 축하공연 등

2)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 결혼이민여성의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입국초기 상담 및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 베트남어-한국어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한다.

▶ **내용:** 베트남어-한국어 통역 및 번역 지원

3)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가정위기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내용:** 가족생활 및 문화차이에 대한 입국초기 상담 및 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가족명랑운동회

4)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 강동구 거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초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기간: 2월 ~ 12월
- ▶ 장소: 신청 가정
- ▶ 대상: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 내용: 가정방문 한국어교육·부모교육 서비스 및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5)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언어 지원

- 결혼이민자를 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 ▶ 기간: 3월 ~ 12월
- ▶ 장소: 강동구가족센터 교육장
- ▶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 내용: 정규 한국어교육과정(1~4단계), 중도입국자녀과정, 한국어 심화과정(특별반)
- 이중 언어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언어발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중 언어 환경을 지향하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기간: 4월 ~ 12월
- ▶ 장소: 강동구가족센터 교육장
- ▶ 대상: 0세~7세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40가족
- ▶ 내용: 다문화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

제5장 강동구 정책적 시사점 및 공간 활용 제언

1. 전통 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제언

1) 전통 문화에 내포된 철학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 ① 전통적 '인(仁)' 사상과 수신(修身) 중심 인성교육의 회복
 - 우리 선조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내재적 가치인 '인격 형성'에 교육의 최우선 목적을 두었다.
 - 유교적 가치관의 계승: 유가의 핵심 사상인 '인(仁)'을 바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타인을 공경·배려하는 공동체 미덕을 중시했다.
 - 실천 중심의 조기 수양: 이론적 습득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實踐)과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신(修身)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다. 이는 현대 인성교육진흥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덕목과 궤를 같이하며, 현대 사회의 도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 ② 다도(茶道) 정신에 내포된 도덕적 덕목과 '예(禮)'의 가치
 - 전통 다도활동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인간관계의 올바른 도리인 '례(禮)'를 체득하는 종합적인 정신문화이다.
 - 차가 지닌 다섯 가지 성품(茶德): 차덕의 본성은 평범함과 실용성, 화목과 성실한 상호작용, 정을 중시하는 접빈(接賓) 정신, 근면·

절약을 통한 도덕 함양, 그리고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정신과 부합한다.

- **수양의 매개체로서의 차:** 우리 선조들은 차를 마시는 과정과 도덕적 수양을 연결 지어 정신과 행동 예절을 계승해 왔다.

③ 현대 인성교육 및 다문화 사회로의 실천적 적용

- 전통 철학이 지닌 가치는 현대적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현장과 사회 통합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 **신체와 정신의 통합 수련:** 인성 교육과 접목한 다도 프로그램은 예절, 도덕,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의 덕목을 반복적인 학습과 실천 위주로 교육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돕는다.

- **다문화 사회의 포용적 예절로의 확장:** 이러한 전통 인성 예절 및 다도 활동은 현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접목된 예절'로서의 실천적 대안을 제공한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전통사회의 '인(仁)'과 '례(禮)'의 철학,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다도예절 교육'을 통해, 현대인들이 올바른 도덕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현대적 인성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통합 지원 확대

- ① 인문학교육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비중 확대
 - 현재의 지원이 영유아기 언어 발달과 초등 학령기 기초학습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쉬운 청소년기를 대비하여 특화된 심리 정서 상담 및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인성교육의 목적과 핵심 가치·덕목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인간(人間)’에 관한 교육이 전부였던 우리의 전통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함양과 바람직한 윤리 실천을 위한 인성교육을 중요시했던 전통사회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교류 및 교육 공간 구축:**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대면 프로그램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맞벌이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상호 교류 플랫폼이나 사이버 한국어/ 이중 언어 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선주민 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제언한다.
 -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리더, 보육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도 있는 다문화 감수성 및 반 편견 교육 커리큘럼이 정규화 되어야 한다.

- 위 항목의 충족 방안으로 인문학적 접근만이 답이라고 생각되는바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우리의 정신문화를 어려운 이론 보다는 다례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미 강동구에 지역적 특성으로 구비되어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의 확대로 가능하며, 이에 다도를 보완하여 진행 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② 아동 청소년의 인성교육 및 다례교육 기본 프로그램 적용

활동목적	차 생활 실천으로 기본생활습관과 화합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활동 명	다실에는 이렇게 해요
활동목표	- 다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타인에 대한 배려와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익힐 수 있다.
활동자료	방석, 다구세트, 명상음악, 다식재료, 다식 판,
활동과정	
준비활동	호흡 명상하기 - 호흡명상의 의미와 방법 설명.
중심활동	① 다실 환경에 대해 관찰하기 ② 다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③ 다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판을 만들어서 직접 적어보게 한다. ④ 사용한 물건은 모두 정리 정돈하여 제자리에 둔다. . ⑤ 다실의 방석 바르게 사용하기(방석을 밟지 않고 두발을 모으고 선다. 방석위에 무릎 꿇고 앉는다. 친구와 방석 바르게 주고받기. 방석을 두 손으로 주고받는다) ⑥ 다실에서 선생님과 인사나누기 ⑦ 다기를 다룰 때는 소리 나지 않게 하고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임한다. ⑧ 차를 우리는 동안에도 '敬'의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한다. ⑨ 손님께 드릴 때는 두 손을 모아 '禮'를 다한다.

표. 다도활동 프로그램의 기본 활동계획안 예시

- 위 표는 아동 청소년의 다례교육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기본으로 다도를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있으나 그 기본 정신과 목적은 동일하다.

2. 암사동 선사 유적의 인문적 재해석을 통한 '선사 다도' 모델 개발

1) 암사동 선사 유적의 인문적 연구 내용

- ① 빗살무늬토기 형태를 응용한 다기(茶器) 디자인 연구, 선사시대 식생(도토리, 멥쌀떡 등)을 활용한 '강동 선사 차(茶)' 블렌딩 개발. "흙과 불, 물"이라는 원초적 요소를 인문학적으로 고찰한다.
- ② **암사동 유적 연계 선사(先史) 인문 다도 모델:** 암사동 유적은 강동구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으로 거친 신석기 삶 속에서도 존재했을 '자연과의 교감'을 현대적 다도와 연결한다.
- ③ **강동구 특화 포인트:** 강동 선사문화축제의 핵심 킬러 콘텐츠로 활용. 유적지 내 '움집 다도 체험'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역사 체험 모델 구한다.
- ④ **핵심 키워드:** 암사동 유적, 원형의 인문학, 빗살무늬 다도이다.
- ⑤ 강동구의 핵심적 정체성인 암사동 선사유적의 역사성과 전통 다례를 결합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의 뿌리를 이해하고 현대 생활 예절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4단계 커리큘럼 제안한다.

2) 1단계: 암사동 선사(先史)에서 배우는 씬과 예(禮)

- ▶ **주제:** 강동구의 뿌리 '암사동 유적' 이해와 첫인사
- ▶ **인문학적 재해석:** 수렵과 채집의 고단한 삶 속에서 토기에 물을 담아 마시던 '원초적 씬'을 현대의 다도와 연결한다.
- ▶ **활동:** 암사동 유적지 탐방: 역사적 가치의 학습 효과가 있다. 빗살무늬 토기 찻잔 체험: 투박하지만 따뜻한 흙의 질감을 느끼며 차를 마시는 정서적 교감을 제공한다.
- ▶ **정착 가이드:** 강동구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및 지역 문화유산 자긍심 함양한다.

3) 2단계: [배움] 자연을 닮은 몸가짐, 전통 다례(茶禮)

- ▶ **주제:** 한국 전통의 기본예절과 다례법으로 우리 문화 익히기.
- ▶ **인문학적 재해석:** 자연의 순리에 따랐던 선사시대의 삶을 '정성을 다해 차를 내리는 과정(행다)'을 통해 예절로 승화시킨다.
- ▶ **활동:** 수기(修己): 차를 마시기 전 마음을 가다듬는 정좌와 호흡법.
- ▶ **기본 다례:** 찻잔을 잡는 법, 차를 따르는 소리 듣기, 한국식 인사법(절) 배우기.
- ▶ **정착 가이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비언어적 소통 방식과 공경(敬)의 문화를 이해한다.

4) 3단계: [교류] 빗살무늬 토기에 담긴 다문화의 맛

- ▶ **주제:** 각국의 차 문화 공유와 화합
- ▶ **인문학적 재해석:** 신석기 시대가 인류 공통의 역사인 것처럼, 차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하나로 연결됨을 체험한다.

- ▶ **다독(茶篤) 사랑방:** 한국의 전통차와 다문화 가정 고향의 차를 암사동 흙으로 빚은 잔에 담아 서로 대접한다.
- ▶ **다식(茶食) 만들기:** 강동구 지역 특산물이나 한국 전통 재료를 활용한 다식 만들기 체험을 한다.
- ▶ **정착 가이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강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대감 형성한다.

5) 4단계: [나눔] 선사의 지혜로 가꾸는 현대의 삶

- ▶ **주제:** 가정에서 실천하는 다례와 수기치인(修己治人)
- ▶ **인문학적 재해석:** 신석기인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도왔듯, 다례를 통해 익힌 배려와 존중을 가정과 지역 사회로 확장시킨다.
- ▶ **활동:** 우리 집 찾자리 꾸미기: 배운 예절을 가족들과 나누는 홈 티타임 매뉴얼을 작성한다.
- ▶ **수료식:** 강동구 다문화 '명예 다도 홍보대사' 위촉을 한다.
- ▶ **정착 가이드:**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가족 간 화목 도모 및 지역 사회봉사 기회를 연결한다.

6) 강동구 특화 포인트

- ▶ **공간의 연결:** 수업 장소를 암사동 유적지 내 혹은 인근 지점(구천면로점 등)으로 지정하여 지역 상권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 ▶ **굿즈의 활용:**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찻잔이나 티 매트를 제작하여 수업 도구로 활용, 시각적·촉각적 각인 효과를 높인다.

- ▶ **심리적 치유:** '선사시대의 느린 삶'을 키워드로 하여 바쁜 현대 한국사회에 적응하느라 지친 다문화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

3. 허브천문공원을 활용한 별자리 명상.

- 강동구의 숨은 보석인 '허브천문공원'은 오감을 자극하는 향기와 밤하늘의 별자리가 어우러진 최적의 명상 장소이다. 다문화 가족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겪는 긴장을 해소하고, '우주'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통해 정서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1) 프로그램명: 별 빛 향기, 강동의 밤 [다문화 가족 치유 명상]

■ 프로그램 개요

- ▶ **장소:** 강동구 허브천문공원 (작은 천문대 및 허브 정원)
- ▶ **대상:** 강동구 거주 다문화 가족 (부모 및 자녀)
- ▶ **핵심가치:** 정서적 안정(Healing), 보편적 연결(Universal Connection), 지역 애착(Local Identity)

2) 1단계: 향기로 여는 마음[허브 아로마 테라피]

- ▶ **활동:** 공원 내 허브 향기를 맡으며 산책하는 '향기 워킹 명상'.
- ▶ **내용:** 라벤더, 로즈마리 등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허브를 직접 만지고 향을 맡으며 한국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이완. 자신이 좋아하는 향기를 찾아보고, 그 향기가 고향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지 짧게 공유한다.
- ▶ **정착 효과:** 오감을 활용한 긴장 완화 및 심리적 방어기제에 효과.

3) 2단계: 별자리로 잇는 고향 [별자리 스토리텔링]

- ▶ **활동:** 천문공원의 관측 시설을 활용해 밤하늘의 별자리를 함께 찾기.
- ▶ **내용:** '같은 별, 다른 이름': 한국의 별자리 전설(견우와 직녀 등)과 다문화 가족 고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별자리 이야기를 교환하고, 비록 사는 곳은 달라졌지만, 고향에서 보던 별과 강동구에서 보는 별이 같은 '하나의 우주'임을 확인하며 이질감 극복을 개선한다.
- ▶ **정착 효과:** '지구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한국을 '연결된 공간'으로의 인식을 도모한다.

4) 3단계: 강동의 밤 아래 '정좌' [별자리 명상]

- ▶ **활동:** 별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데크에서 진행하는 야간 명상.
- ▶ **내용:** 별빛 호흡: 밤하늘의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마음속 불안을 내뿜는 시각화 명상으로 진행한다.
- ▶ **다례와 명상의 결합:** 앞서 배운 차(Tea) 문화를 응용하여, 차를 마시며 별 아래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정착 효과:**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수기(修己)'의 과정을 배운다.

5) 4단계: 빛나는 소원 기록[별빛 타임캡슐]

- ▶ **활동:** 별자리 모양의 야광 엽서에 강동구에서의 꿈을 적기.
- ▶ **내용:** 강동구민으로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작성. 허브천문공원의 상징물을 배경으로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강동구에서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정착 효과:** 지역 사회 안에서의 미래 비전 설계 및 긍정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6) '별자리 인문학' 강연과 茶 명상[마음 챙김]

- 허브천문공원은 향기와 하늘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서양의 허브(Herb)와 동양의 차(茶), 그리고 천문(Astrology) 인문학을 결합한다. 밤하늘을 보며 차를 마시는 '성좌(星座) 다도 명상' 프로그램 설계를 한다.
- ▶ **연구 내용:** 허브천문공원에서 재배되는 허브와 전통차의 배합을 연구한다.
- ▶ 차로 왜 명상을 하는지? 옛 문인(유,불,도)들이 차를 정신의 수양적 음료로써의 의미를 현재에 접목한다.
- ▶ 차를 마시는 자리인 다석(茶席)은 언제나 고요함(정:靜)에 들어야 하며, 다인(茶人)의 마음은 정(靜)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모아 고요함과 안정됨에 익숙해지면서 깨닫는 도리를 철저하게 알게 됨을 체험하게 한다.
- ▶ **강동구 특화 포인트:** 기존 허브천문공원 프로그램을 인문학적으로 심화로 치유와 힐링이 필요한 직장인 및 구민을 위한 야간 관광·복지 모델로 발전시킨다.
- ▶ **핵심 키워드:** 허브 다도, 천문 인문학, 오감 만족 치유.

7) 강동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 팁 강동구 특화

- ▶ **다국어 별자리 가이드:** 천문공원 내 안내 표지판이나 리플렛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번역본(베트남어, 중국어 등)을 제공한다.

- ▶ **시즌별 테마:** 봄/가을에는 허브 축제와 연계하고, 겨울에는 작은 천문대 안에서 따뜻한 전통차와 함께하는 실내 별자리 투영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 **지역 주민 멘토 참여:** 강동구 자원봉사자나 지역 주민이 '별자리 안내자'로 참여하여 다문화 가족과 자연스러운 이웃 관계를 맺도록 유도한다. 허브의 '향기'와 우주의 '별빛'은 언어의 장벽이 없는 만국 공통의 치유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강동구를 '낯선 곳'이 아닌 '별이 내려앉은 따뜻한 정원'으로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4. 북카페 '다독다독(多讀茶簫)'의 공간 및 큐레이션 전략

- 강동형 복합 문화 공간 내 다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강동구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인 북카페 '다독다독'을 단순 공간 운영을 넘어 인문학적 거점으로 심화를 제안한다. 이름부터 '많은 읽기(多讀)'와 '돈독한 차 마심(茶簫)'을 내포하고 있다.
- **연구 내용:** 각 지점별(구천면로점, 고분다리시장점 등) 특성에 맞는 '한 권의 책과 한 잔의 차' 인문학 큐레이션 가이드라인 개발로, 다문화 구민들이 직접 차를 내리며 대화하는 '다독(茶簫) 사랑방' 운영 매뉴얼 수립한다.
 - ▶ 지점별 특화 '한 권의 책과 한 잔의 차' 큐레이션 가이드
 - ▶ 각 지점이 위치한 지역의 유동 인구와 정주 여건을 반영하여 테마를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 구정 역점 사업인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나 '북카페 도서관' 사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연구로 활용 가능하다.
- **핵심 키워드:** 다독다독(多讀茶簫), 생활 인문학, 공동체 다도(茶道).

1) 구천면로점에서 예술과 힐링

- **지역 특성:**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된 문화 예술적 분위기.
- **가이드라인:**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이달의 찻잔' 전시와 함께 관련 도서를 비치하는 '갤러리형 큐레이션' 등도 제안한다.
- **큐레이션 방향:** '나를 찾는 시간'
 - ▶ **차(Tea):** 마음을 진정시키는 블렌딩 허브차 또는 발효차.
 - ▶ **도서:** 아트북, 에세이, 시집 등으로 서투른 초기 정착민도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서 중심으로 한다.

2) 고분다리시장점의 생활과 활력

- **지역 특성:** 전통시장 인근으로 중장년층과 생활 밀착형 유동 인구가 많다.
- **가이드라인:** 시장 상인들과 다문화 가족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장바구니 속 책 한 권' 테마의 오픈 형 북카페 형태 제안한다.
- **큐레이션 방향:** '우리 동네 이야기'로 화합을 모토로 한다.
 - ▶ **차(Tea):** 시장의 활기찬 이미지와 어울리고 익숙하고 접근성이 좋은 차로 선별한다.
 - ▶ **도서:** 한국의 전래동화(번역본 병행), 실용 실무 도서(요리, 경제), 생활 밀착형 잡지 등으로 선별한다.

- ▶ **‘다독(茶篤) 사랑방’ 운영 매뉴얼 수립 아이디어:** 단순한 음용을 넘어, 다문화 구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는 ‘문화적 아지트’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로 구성한다.

3) 운영 주체: ‘다문화 티-마스터(Tea-Master)’ 양성

- **역할:** 각 나라의 차 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차를 내리는 호스트 역할로 교육 이수 후 관련 업종에 취업을 유도한다.
- **매뉴얼 내용:** 차를 내리는 기본적인 행다(行茶)법 뿐만 아니라, ‘대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대화 예절 교육 포함한다.
- **소통 프로그램:** ‘찾잔 속의 세계여행’으로 다국적 문화로 소통한다.
 - ▶ **구성:** 매달 한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차와 간식을 준비한다.
 - ▶ **기법:** ‘아이스브레이킹 카드’ 활용. (예: "우리 고향에서 이 차는 언제 마시나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맛은?")
 - ▶ **기록:** 대화 중 나온 좋은 문장이나 감상을 방명록 형식의 ‘다독(茶篤) 일기’에 기록하여 문화를 공유한다.

4) 공간 및 안전 가이드라인

- **공간 구성:** 좌식보다는 접근이 편한 입식 테이블을 기본으로 하되, 따뜻한 조명과 나무 소재를 활용해 안락함 강조.
- **안전 관리:** 뜨거운 물 사용에 따른 화상 방지 주의사항, 다인종·다문화 간의 금기 사항(종교적 식이 조절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포함.

5) 프로그램 기대효과 및 제언

- 언어 장벽 완화: '차(Tea)'라는 비언어적 매개체를 통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초기 정착민의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할 수 있다.
- 지역 사회 연결: 지점별 특화 가이드라인은 다문화 구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낸다.

5. 다문화 가정 통합을 위한 독립적 '강동 다레원' 건립의 타당성

- 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거점이 될 것이다. 다레원 건립 시 다문화 가정에 주는 이로운 점은 다음과 같다.

1) 다레원 건립 시 이로운 점

- ①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안전 지대' 제공
 - 낯선 환경에서 겪는 정착 스트레스를 차(茶)와 명상을 통해 완화한다. 다레원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기(修己)'의 공간으로서 정서적 안식처 역할을 한다.
- ② 한국 사회의 '비언어적 문법' 습득
 - 한국의 예절은 언어보다 몸짓, 시선 처리, 기다림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다. 다레 체험은 복잡한 문법 공부 없이도 한국인의

'공경과 배려' 문화를 몸소 익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오해와 갈등을 줄여준다.

③ 자녀 교육의 구심점 (정체성 확립)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배움으로써 학교 생활에서 자신감을 얻고, 부모의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서 균형 잡힌 글로벌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④ 세대별 효과

- 유아, 어린이 다도활동 프로그램의 인성 발달 효과.



어린이 다례

- ▶ **기본생활습관 향상:** 다도 후 정리정돈과 다도실 규칙 준수를 통해 유아들이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자아확립 증진:** 차를 우리고 대접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 ▶ **공동체의식 함양:** 협동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다도활동을 통해 또래 간 협력 기회가 많아져 공동체의식이 향상된다.
- ▶ **사회성 발달:**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 협동심, 나눔의 미덕을 배우게 된다.
- ▶ **신체 발달:** 다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눈과 손의 협응력이 길러지고 소근육 및 대근육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아래 표는 다례 교육 전, 후의 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알 수 있는 논문 자료이다.



표. 유아, 어린이 다도 교육 마친 후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표.

- 결론적으로, 다도활동 프로그램은 유아가 상대방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며,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율성, 자기 조절 능력, 사회성, 신체 발달 등 전반적인 인성 발달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시사한다.

○ 청소년 다도 교육의 효과

- ▶ **인성 및 예절 함양:** 대인 관계의 기본예절을 익히고, 정신적 수행을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올바른 인격을 형성한다.
- ▶ **정서적 안정 및 도덕성 증진:**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청소년기에 다도 교육은 뒤흔어진 성품을 변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과 도덕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종합적인 교육 효과:** 차를 매개로 한 다도 교육은 인성 교육, 기본 생활 예절, 전통문화계승, 건강한 신체 발달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학교 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 ▶ **자아 정체성 확립 및 친밀감 증진:** 청소년이 직접 다도 활동에 참여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효와 스승에 대한 예의를 일깨우며 자아 정체성 확립과 친밀감 증진을 유도한다.

중점영역	저학년 지도 내용	고학년 추가 지도 내용
생활 다도	- 안전교육 - 방석예절, - 한복 바르게 입기(고름 묶는 법) - 절하기(공수법, 큰절, 평절) - 바른 몸가짐, 바른 마음가짐 - 생활다도예절(차명상) - 다식 만들기 체험	- 차례, 제사의 의미 - 성년례, 계례 - 식사 초대 및 식사 중의 예절 - 글로벌 테이블 매너 - 홍차마시기
현대 예절	- 언어, 식사 예절 - 글로벌 테이블 매너	세계 각국의 다도 예절 문화

표. 청소년 다례에 추가 교육 내용의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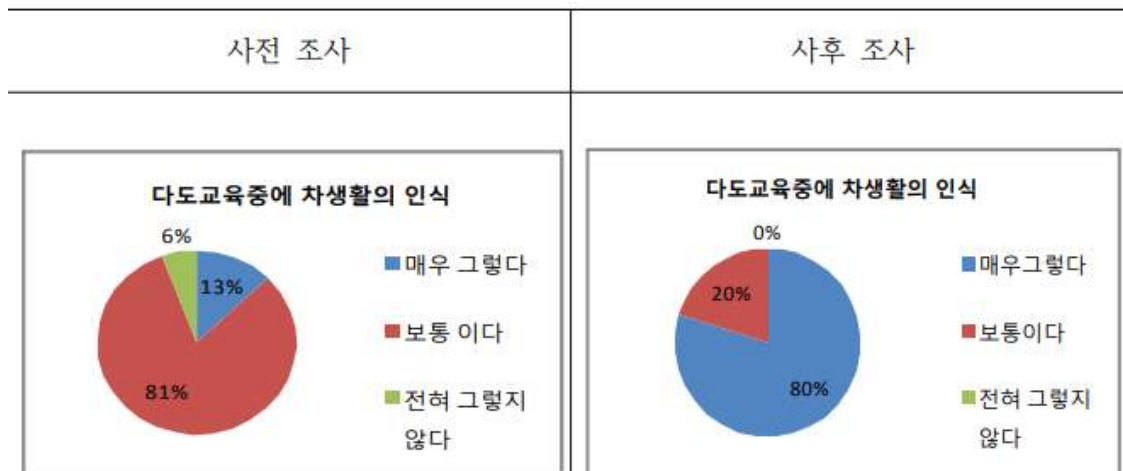


표. 청소년 다도 교육 마친 후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표.

- ▶ 위의 표는 청소년의 다도 교육 관련 논문에서 다도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이러한 교육을 마친 후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 **대학생 교양과목 '다도를 통한 예절 실습'의 효과:** 본 보고서는 대학 학부 교양과목인 '다도를 통한 예절 실습'의 교육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과목은 1인 다도를 통한 호흡 명상과 4인이 함께하는 접빈 다례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다도 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

- ▶ **정신적 평온 및 스트레스 해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다도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고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 **교류를 통한 '和'의 의미 체득:** 타 학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다례를 진행하며 '화(和)'의 의미를 깨닫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예절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성인 다도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필요성 인식

- ▶ 다도교육의 정신적.신체 건강적 측면에서 연령과 학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 ▶ 정신적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정서 안정과 정신 건강에 큰 교육적 효과가 있다.
- ▶ 차생활.행동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
- ▶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이해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영유아기	99	34.5
초등학교	130	45.3
중고등학교	43	15.0
대학교	6	2.1
대학교 졸업 이후	9	3.1
계	287	100.0

표. 다도교육의 적절한 시기

- 다도 교육이 정신적.신체 건강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을 만들어 설문조사와 실습을 병행 분석한 논문을 사례로 보면, 그 결과 정서안정과, 인내력 향상, 정서적으로 풍부, 신체적 기능 향상, 창의력 향상, 노력하는 마음, 애국심 고취는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문항들인 비교적 교육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다도교육 전문기관에서의 다도교육의 총기간은 다도교육의 특성상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간		빈도(명)	비율(%)
초급 (초기교육과정)	6개월 미만	56	16.2
	6개월 ~ 1년 미만	63	18.3
	초급 전체	119	34.5
중급 (중기교육과정)	1년 ~ 2년 미만	56	16.2
	2년 ~ 3년 미만	53	15.4
	3년 ~ 4년 미만	35	10.1
	중급 전체	144	41.7
고급 (장기교육과정)	4년 이상	82	23.8
계		345	100.0

표. 교육 기간 선호도

- 다도교육 전문기관에서의 다도교육과정 운영 유형을 예로 들면, 1년 미만의 기간에서는 연수반 과정에 이어 연구반 과정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범3급 과정이 1년, 사범2급 과정이 1년, 사범1급 과정이 1년씩 소요 되고 있고, 이후 장기교육과정으로 지도자 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다도생활 횟수	매일 1회 이상	79	31.7
	1주에 2-3회 이상	104	41.8
	1달에 4-5회 이상	43	17.3
	1년에 6회 이상	9	3.6
	거의 하지 않음	14	5.6
다도교육 기간	6개월 미만	57	22.9
	6개월 이상 1년 미만	42	16.9
	1개월 이상 3년 미만	32	12.9
	3년 이상 5년 미만	23	9.2
	5년 이상	95	38.2
다도교육 동기	다회	63	25.3
	홍보지, 대중매체	22	8.8
	선배나 친구, 동료 권유	117	47
	직장연수	5	2
	취업 및 창업	12	4.8
다도교육 장소	기타	30	1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33	11.5
	시군구평생학습관	55	19.2
	학교부설초중등학교대학원	28	9.8
	사업장부설유통업체,	49	17.1
	문화센터산업체부설		
	언론기관부설기타	5	1.7
	시민사회단체부설	32	11.1
	학원	7	2.4
	주민자치센터	19	6.6
다도교육 적정시간	기타	59	20.6
	1시간 미만	33	13.3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35	54.2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75	30.1
다도교육 의식	3시간 이상	6	2.4
	차의 정신적인 면	47	18.9
	차의 신체건강적인 면	61	24.5
	예절과 법도	68	27.3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문화교육	70	28.1
전체	기타	3	1.2
		249	100

표. 성인 다도교육의 현황

다도교육의 필요성		빈도(명)	비율(%)
필요하다	정신 건강에	138	48.1
	신체 건강에	9	3.1
	예절과 법도를	106	36.9
	전통문화의 계승에	23	8.0
	소계	276	96.2
필요하지 않다	차를 좋아하지 않아서	4	1.4
	차를 마실 필요성을 못 느끼므로	3	1.0
	다례의 격식이 복잡해서	3	1.0
	다구가 없어서	1	0.3
	소계	11	3.8

표. 다도 교육의 필요성

적정시간	빈도(명)	비율(%)
차의 효능	40	13.9
차와 관련된 생활예절 면	137	47.7
다례실습(행다)	27	9.4
차문화에 관여하는 이론과 실습	83	28.9
계	287	100.0

표. 다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

○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도교육의 필요성 모색 방안

- ▶ **높은 필요성 인식:** 다도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되며, 특히 정신 건강, 예절, 전통문화 계승, 신체 건강 순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 ▶ **적정 교육 시간 및 강조점:** 1~2시간의 교육이 적정하며, 차의 정신적인 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교육, 예절, 신체 건강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 중요지도 내용 및 개선점

- ▶ '차와 관계된 생활 예절'과 '차문화 이론' 지도가 중요하며, 전통을 존중하면서 현대생활에 적합한 내용으로 지도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한다.
- ▶ **자녀 다도 교육의 필요성:** 대다수가 자녀 다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초등학교 시기 또는 영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한다.
- ▶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 지속적인 다도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의지 필요.
- ▶ **높은 만족도 및 자격증 필요성:** 다도 교육 후 만족도가 높으며,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된다.
- ▶ **보급 및 조화:** 유치원, 학교, 사회 교육기관에 다도 교육을 널리 보급하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이는 곧 지역 지자체의 중장년층 이상 실버세대라 하는 층에 더 필요로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도교육을 부흥시키는 방안에 대해 성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유치원, 학교, 사회교육기관에서 다도교육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전통문화임을 강조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차의 학문적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1] 강동 '글로벌 티-서포터즈' 양성 과정

- ▶ **내용:** 한국 다례를 숙달한 다문화 구민을 '예절 지도사'로 양성.
- ▶ **활용:** 이들이 강동구 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다문화 일일 교사'로 파견되어 한국 다례와 본국 차 문화를 함께 소개.
- ▶ **효과:** 수혜자에서 공급자로의 역할 변화를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일자리 창출.

3) [프로그램 2] '고향의 맛, 한국의 예' 융합 다회[茶會]

- ① **내용:** 한국의 다례 형식을 빌려오되, 차와 다식은 각 가정의 모국 것을 준비하는 상호 존중 프로그램.
- ② **대상 및 기간**
 - **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성인 및 자녀 동반 참여 가능)
 - **기간:** 1회성 특강 (90분~120분), 또는 주 1회/월 1회 정기 프로그램 (총 4회~6회 과정) 등 기관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 가능.
 - **언어 지원:** 프로그램 진행 시 한국어와 영어 병행 또는 통역 자원 봉사자 배치, 다국어 자료 제공을 고려한다.
 - **문화적 배려:** 각국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특성(예: 음식 제한)을 존중하여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 ③ 아래 표는 기본 다도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 **‘나의 나라 차 이야기’ 공유 시간:** 참여자 각자의 모국에서 즐기는 차 문화(차 종류, 마시는 방법, 관련된 풍습 등)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간단한 사진이나 소품을 활용하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서로의 차를 시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다문화 다과상 차리기:** 한국의 전통 다식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국을 대표하는 간단한 다과(과자, 떡, 과일 등)를 준비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자연스럽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전통 의상 체험:** 한국의 한복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국 전통 의상을 준비하여 서로 입어보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시각적으로 문화를 체험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우리들의 차실 꾸미기:** 다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을 함께 꾸미는 활동. 한국적인 요소(예: 한지 공예, 전통 문양)와 참여자들의 모국을 상징하는 소품이나 그림을 함께 배치하여 완성한다.
 - **다문화 다도구 만들기:** 간단한 재료(점토, 한지 등)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찻잔이나 다과 접시를 만들고, 여기에 한국적인 문양과 모국의 전통 문양을 함께 그려 넣어 문화 융합의 결과물을 만들어 본다.

- **차와 함께하는 한-외국어 교실:** 다도 용어나 예절 표현을 한국어로 배우고, 참여자들의 모국어로도 해당 표현을 익혀본다. 이는 언어 장벽을 낮추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분	소요 시간	주요 활동 내용
한국 차문화 소개	30분	- 한국 차의 역사와 의미, 종류 (녹차, 발효차 등) 소개 - 다도구의 명칭과 용도, 관리법 배우기 - 다도 예절의 기본 (바른 자세, 공수 인사법) 시연 및 실습
다례실습 및 체험	50분	- 잎차 또는 말차 우리는 법 시연 및 직접 실습 - 차 마시는 예법 익히기 (오감 활용) - 차와 함께하는 전통 다식 맛보기
문화 교류의 시간	30분	- 참여자 모국의 차 문화 및 차 관련 이야기 공유 (사진, 간단한 설명) - 차를 통한 소통과 공감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대화)
전통문화 연계활동	40분	- 다식 만들기: 한국 전통 다식(예: 간단한 한과, 떡)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 간단한 전통 공예: 한지 접기, 매듭 팔찌 만들기 등 차와 관련된 작은 소품 만들기 - 전통 놀이 체험: 간단한 한국 전통 놀이 (예: 윷놀이, 제기차기) 경험
마무리	10분	- 다도 체험 소감 나누기 - 기념 촬영 및 다음 만남 기약

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다도 프로그램

⑤ 지역사회 연계 및 확장

- **다문화 다회(茶會) 개최:** 프로그램 말미에 지역 주민(한국인)을 초대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다회를 열고, 한국 차와 함께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한다.

- **지역 문화 탐방 연계:** 다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내 전통 시장, 박물관, 또는 한옥 마을 등을 함께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 멘토-멘티 결연:** 한국인 자원봉사자(멘토)와 외국인 참여자(멘티)를 1:1로 연결하여 다도 외적인 부분에서도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참여자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문화 융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 **활용:** 분기별로 '베트남의 날', '중국의 날' 등을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을 다레원으로 초대한다.
 - ▶ **효과:** 다문화 가정에는 자부심을, 지역 주민에게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류의 장이 된다.

4) [프로그램 3] 생애주기별 '강동 예절 학교'

- ▶ **내용:** 한국의 관혼상제(성인식, 명절 예절 등)를 다문화 가정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한다.
- ▶ **활용:** 설·추석 맞이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차례상 의미 배우기.
- ▶ **다문화 청소년 성년례:** 암사동 유적의 역사성과 결합한 특별 성인식 개최한다.
- ▶ **효과:** 한국 사회의 주요 통과의례를 경험함으로써 실질적인 '한국인' 으로서의 소속감이 고취된다.

5) 강동구만의 특화 공간 구성 제안

- ▶ **암사(岩寺)실:** 신석기 토기 문양을 활용한 현대적 다도 공간으로 활용한다. ('선사인문 다도' 모델 적용)
- ▶ **천문(天文)실:** 천장이 열리거나 밤하늘을 투영할 수 있는 명상실 활용한다. (허브천문공원 프로그램과 연계)
- ▶ **공동체 사랑방:** 차를 마시며 행정 서비스나 정착 상담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오픈형 카페 공간으로 활용.

6) 정책적 제언: '강동형 다문화 통합 모델'

- 다례원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인문학적 치유와 사회적 진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차 한 잔을 내리는 정성이 강동구라는 새로운 고향에 뿌리내리는 정성으로 이어지도록" 이러한 비전을 담은 다례원 건립은 강동구가 추구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제6장 강동구 다문화 정책 발전 제언 및 결론

- 강동구의 다문화 정책은 기존의 단순 적응 지원을 넘어,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인문학적 통합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동구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한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1. 다문화 맞춤형 핵심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1) 암사동 선사 유적 연계의 '선사 다도' 다문화 모델 개발

- 강동구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인 암사동 유적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이 한국의 뿌리를 이해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도록 돕는다.
- **인문적 재해석:** 신석기인의 '원초적 씬'을 현대적 다례와 연결하여 빗살무늬 토기 찻잔 체험 등을 진행한다.
- **단계 커리큘럼:** [만남] 유적지 탐방과 씬터 체험 → [배움] 전통 다례와 수기(修己) 학습 → [교류] 각국의 차 문화 공유 → [나눔] 가정 내 다례 실천 및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 **특화 포인트:** '강동 선사문화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역사 체험 모델을 구축.

2) 허브천문공원 활용: 다문화 치유를 위한 '명상 다도' 융합

- 낮선 환경에서 겪는 이주민의 심리적 긴장을 '우주'라는 보편적 소재로 해소한다.

- **치유 명상:** 허브 향기를 통한 아로마 테라피와 밤하늘 별자리 스토리텔링을 결합한다.
- **보편적 연결:** “같은 별, 다른 이름”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과 한국이 하나의 우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정서적 소속감을 강화한다.
- **수기치인(修己治人):** 야간 ‘성좌 다도 명상’을 통해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3) 북카페 다독다독: 다문화 거점 및 큐레이션 전략

- 지역 내 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을 다문화 소통의 인문학적 아지트로 심화한다.
- **지점별 특화:** 구천면로점(예술과 힐링), 고분다리시장점(생활과 활력)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한 권의 책과 한 잔의 차’ 큐레이션을 도입한다.
- **다문화 티-마스터 양성:** 다문화 구민을 ‘대화 촉진자’로 양성하여 수혜자에서 문화 공급자로 역할을 전환한다.

4) 강동 다례원 건립: 다문화 교류 중심지 구축 타당성

- 사회 통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용 거점 공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기능:** 한국의 비언어적 예절(공경, 배려) 습득,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 글로벌 예절 지도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 다문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당위성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모델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1) 정책적 측면: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제도적 기반

- 동화주의를 넘어선 '인문학 기반 다문화 정책'의 전국적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 **한국 문화 이해 및 적응력 향상:**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 **심리적 안정 및 웰빙 증진:** 차분한 다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형성:**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한국인 및 다른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 **가족 유대감 강화:**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다.

2) 사회적 측면: 다문화 구성원의 소속감 증진 및 통합

- 이주민에게는 '문화적 안전지대'를 제공하고, 선주민에게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한다.
-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한국인 및 다른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3) 경제적 측면: 다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역사 자산(암사동 유적 등)의 관광 자원화 및 이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 예술 일자리를 창출한다.

4) 지역적 당위성: 포용적 다문화 거버넌스 구현

- **왜 강동구인가?:** 강동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 통합의 최적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이다.
- **독보적 역사 자산:** 한강 유역 최대 신석기 유적지를 보유하여 인류 공통의 '원형적 인문학'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자치구이다.

- **급격한 인구 동태:** 2026년 기준 서울 내 외국인 유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인 통합 정책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
- **준비된 인프라:** '다독다독' 북카페 등 기존의 우수한 거점 공간을 고도화함으로써 추가 예산 투입 대비 정책 실효성을 즉각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
- 차 한 잔을 내리는 정성이 강동구라는 새로운 고향에 뿌리를 내리는 정성으로 이어지도록, 강동구만의 특화된 역사성과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정책적 지원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는 강동구가 추구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논문 자료

조영희·백아롱, 「다문화 부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부모 효능감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평화』20, 2026.

송해련,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1인당 경제적순효과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2026.

교육부, 「2024년 다문화 학생 교육 현황」. 세종: 교육부, 2024.

김윤정·배화옥,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부모 효능감이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문화사회연구』, 202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4년 가족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서울: 20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함윤주,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3(2): 2020.

박동진·김송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역량과 자아 존중 감의 연속 다중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24(1), 2023.

이령,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3(4), 2023.

이지형·문인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경험이 비행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또래 애착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연구』, 2022.

류근필, 「다문화 가정의 문화변용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22.

왕설, 「결혼이주 중국여성 청소년 자녀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최지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강다영·강현아,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통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24, 2022.

이윤영,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2019.

Park, J. C., Ji, M. H., & Lee, B. S. Business environment adaptation of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resources in transformational self-leadership effects.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15(4): 2025.

Le, T. T. K., & Trinh, T. M. Future-oriented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A cultural and qualitativ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27(3): 2025.

Sun, H. (2023). Harmonious bilingual experience and child wellbeing: a conceptual framework. 『*Frontiers in Psychology*』, 14: Article 1170993.

2. 기관 사이트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4). <https://kess.kedi.re.kr/index>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성평등가족부, www.mogef.go.kr

한국교육부, <https://www.moe.go.kr>

통계청, <https://kostat.go.kr/ansk/>

노동부 <http://www.molab.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조선일보 <http://chosun.com>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go.kr>

3. 인터넷 사이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산업 연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020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4775>.

국회회의록, 회의록검색.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10.do>. 참고, 2020.

서울문화재단(2022), “한복논쟁, 한류, 그리고 문화다양성”

https://blog.naver.com/i_sfac/222668898814.

강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현황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ontents/gdp_005_001_006_002_005_001

강동구 가족센터 및 유관 기관 운영 현황

<https://gangdong.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15C317/history/list.do>

현재 암사동 유적 연계프로그램.

<https://sunsa.gangdong.go.kr/site/main/edu/program/EXPERIENCE/CHILDREN/list>

'허브천문공원'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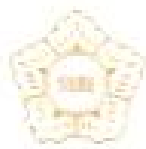
https://www.gangdong.go.kr/web/culture/contents/gdc010_020_030

'다독다독(多讀茶篤)' 강동형 복합 문화 공간.

<https://gdbookcafe.gdlibrary.or.kr/gdbookcafe/index.do>

강동구의회 지역문화연구회

- ▷ 한진수 의원(회장)
 - ▷ 제갑섭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 서회원 의원(문화복지위원장)
-



강동구의회
GANGDONG-GU COUNCIL